

- 동남아시아 지역의 산림이 전례 없는 속도로 손실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 발표
- 6월 28일 네이처 서스테인러빌리티(Nature Sustainability)지는 동남아 고지대 산림의 경작지 전환이 전례 없이 가속화 추세에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함
- 고해상도 위성 데이터 세트와 탄소 밀도 및 지형에 대한 최첨단지도를 분석하여 이 지역의 산림 손실 패턴을 정량화한 결과 지난 20년간 태국 면적보다 더 큰 61만 km²의 산림이 손실되었고, 이 중 31%가 산악 지역에서 발생하여 약 189,100km²의 고지대 숲이 경작지로 전환되었으며, 라오스 북부, 미얀마 북동부, 인도네시아의 동부 수마트라와 칼리만탄에서 현저한 산림 손실이 나타남
- 강이 시작되는 가파른 상류에서 숲을 개간하면 저지대에서 치명적인 산사태와 홍수의 위험이 높아지고, 토양 침식과 유출이 심화하여 강이 농업 오염 물질로 막혀 하류 수질과 가용성을 감소시킴
- 동남아 고산지대의 산림은 국제 기후 목표 달성 성패를 좌우하는 열쇠
- 동남아 지역 산림 손실은 2000년대에는 주로 저지대에 집중되던 반면, 2010년대부터 고지대로 이전되는 양상을 보였는데, 2019년까지 고지대에서 발생한 연간 총 산림 손실률은 42%이며, 산림 손실의 경계는 연간 약 15미터(49 피트)의 속도로 고지대의 산림 손실이 가속화되는 추세임
- 전 세계 열대 산림의 절반을 차지하는 동남아 지역은 저지대 산림에 더 많은 탄소 저장고를 보유한 아프리카 및 남미와 달리, 고지대의 생태계는 지구상 최대의 생물 다양성과 유기 토양 함량이 높아 거대한 탄소 저장고를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저지대 산림보다 더 많은 탄소를 저장하고 있어 고지대의 산림 손실은 기후 변화 대응에 있어 매우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
- 동남아 전체의 연간 산림 탄소 손실량은 연간 4억 4,200만 미터 톤 CO₂로 추정되며 이는 전 세계 해양에서 연간 흡수되는 전체 탄소의 1/6에 해당되는데, 기상 적응 과학자인 폴 엘슨(Paul Elsen) 박사는 "실무자와 정책 입안자들은 동남아 고지대 산림의 탄소 저장고가 손실되면 국제 기후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란 사실을 알기는 바란다"고 조언함